

# “이달에만 세번째 물바다”...폭우 피해 주민들 ‘분통’

광주 중흥3동 재개발 현장 또 물바다...광주천 등 8곳 한때 통제도  
영광 시간당 66.4mm 등 전남 주택·농경지 침수·가축 폐사 잇따라

광주시 북구 중흥 3동 재개발 현장 주민들은 세번째 침수 피해를 입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일대 주민들은 지난 10일, 13일에 이어 29일까지 이달 들어서만 3차례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구정축이 13일 침수 피해 이후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등 시설 보강을 했음에도, 침수피해를 비켜가지 못했다. 전남에서도 집중 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영광군 191.5mm, 장성 상무대 167.5mm, 영광 연산 190.5mm, 곡성 석곡 99.9mm, 광주(조선대) 140mm 등을 기록했다.

특히 영광에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시간당 66.4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광주 조선대 인근에도 오전 10시 30분께 시간당 53.5mm의 강한 비가 내렸다. 광주와 영광·장성에는 한때 호우경보가, 곡성·구례·화순·담양·함평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었다.

◇“침수피해 이달에만 3차례, 보고만 있을거냐”=북구 중흥동 재개발 현장 일대에 거주하다 벌써 3차례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흉탄물로 범벅이 된 가재 도구 등을 정리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주민들은 인근 재개발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토사와 섞인 물이 빠지지 않아 북구 조차 염두를 내지 못하는 현장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

북구가 지난 침수 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재개발건설사측과 협의할 것”이라는 했지만 헛말이 됐다. 북구는 지난 침수 이후 600mm짜리 관로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했다. 배수펌프도 새로 4대를 갖춰놓고 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고 53.5mm의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이 일대는 또다시 물바다가 됐다. 17개 상가·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3일에도 1556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 17개동(지하 2층·지상 25층)을 짓는 재개발 공사가 미처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인근 주택 13곳과 상점 4곳 등 17곳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당시 주민들은 양수기를 동원, 주택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냈지만 새벽 내내 내린 비에 양수기가 고장나면서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다.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사안일한 당국의 재해대책이 한 달 동안 3차례의 침수 피해를 나게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침수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재(官災)”라며 분노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외 광주에서는 광주시 남구 행암동 효천중 후문 인근 담벼락을 지탱하는 축대 일부가 폭우에 무너져 내려고 남구 월산동 왕북 10차로 도로가 한때 침수되는 등 30건 넘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고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서 광주천 등 8곳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

◇농경지 물에 잠기고 키우던 가축 폐



29일 오후 영광군 군남면 포천천에서 중장비가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 부유물을 걷어내고 있다. <영광군 제공>

사하고=전남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했다. 주택과 축사, 상가 등 건물 곳곳이 침수되고, 소하천 제방이 유실되거나 범람해 하천물이 논으로 밀고 오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피해는 전남부터 이날까지 183.1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광에 집중됐다.

전남도소방본부에 접수된 14건의 비피해 신고 중 12건이 영광에서 신고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영광에서는 주택 10동과 상가 등 건물 4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택 등 건물 침수 피해는 영광을, 백수읍, 군남면, 연산면, 낙월면 등지에서

발생했다.

영광지역은 363ha, 함평지역은 15ha에 침어진 벼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지역 소하천 4곳의 제방 곳곳이 유실되거나 하천이 범람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하천 제방 일부 유실은 장성에서도 일어났다. 당국의 조사와 농민 피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농작물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영광 군서면 만곡리 양계장에서는 빗물이 갑자기 밀려들면서 손슬 틈도 없이 병아리 3만수가 폐사했다.

전남지역 크고 작은 도로 8곳이 한때 침수되기도 했다. 장성군 삼계면 수산리 마을에서는 석축이 11m가량 유실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당국은 주택, 벼·축사 침수지역에 양수기를 투입해 배수를 돕는 한편 유실된 소하천 제방에 마대를 쌓는 등 응급 복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0~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1연구위원회 참여 이력 서주석 1차장 거취 결단하라”

지역 10여개 시민단체 촉구

시민단체들이 511연구위원회 참여 이력이 있는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10여개 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511연구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외곽을 위해 비밀리에 운영된 국방부 비밀조직”이라며 “그런 곳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이나 중용됐다”고 비판했다. 511연구위는 국방부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대비하고자 구성한 특별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계엄군의 폭력진압이 자위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를 세워 5·18 진실을 외곽한 조직이라고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서주석 1차장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조사 대상자”라며 “청와대의 5·18 진실규명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초래하는 잘못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주석 1차장은 역사바로 세우기라는 국가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주석 1차관은 이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국방부 차관 시절 광주에서 5·18 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과하고, 511연구위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단순 업무만 맡았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내년 입영 카투사 1590명 모집 병무청 홈페이지 9월 16~22일 접수

병무청이 오는 2021년 입영할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1590명 모집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9월 22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2년 1월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일정한 어학성적(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작년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서 접수 후 늦어도 10월 23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원서 접수 후에는 국외 토익(TOEIC), 국외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합격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오는 11월 5일 선발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지적장애인 등친 40대 항소했다가...되레 형량 늘어나

화물하역 일을 하며 알게된 지적장애인에게 접근, 50여년 동안 모은 재산 대부분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 남성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를 속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 등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피해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종신보형까지 해지해 써버리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컴퓨터 등 사 용사기, 사무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 50년 모은 재산 수억 가로채 법원 “1심 형이 너무 가볍다”

각각 징역 1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부족한 지적능력에도 50세가 넘도록 성실히 모은 피해자의 재산 상당부분을 빼앗고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

A씨는 같은 일을 하며 알게된 피해자 B씨의 사회연령이 9세 정도인 점을 알고 친분을 쌓으면서 B씨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한 뒤 2017년 8월부터 수십여차

례에 걸쳐 B씨 명의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달라며 가로채는가 하면, B씨 종신보형을 해지해 써버리고 B씨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가로채는 등 4억8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8년 사무서위조 등으로 선고받은 확정 판결을 갑안, 확정 판결 전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하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순천 모 여고 소프트볼팀 운영 비리 관련자 불기소에 교육시민단체, 법원에 재정신청...철저한 수사 촉구

교육 시민단체가 순천 모 여고 소프트볼팀 운영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장비 구매 비용,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지원금 등을 빼돌린 순천 모 여고 소프트볼팀 운영 비리와 관련해 당시 소프트볼 코치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4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을 뿐 당시 학교장을 비롯한 체육부장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 범행기간을 2017~2018년으로만 한정했으며, 이는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혐의(기간, 액수)마저도 축소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과정에서 수사가

관은 피의자 측 의견에는 예민했던 반면 1차 조사기관인 전남교육청의 감사보고서와 피해자 의견은 배제하거나 묵인해왔으며, 수사는 지연됐고 계좌 압수수색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소프트볼팀 운영 비리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피해 학부모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지난 28일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부실한 수사과정과 결과 탓에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학부모들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간 반복마저 깊어가는 상황”이라며 “재정신청을 통해 소프트볼팀 운영 비리가 더 철저히 수사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